

종이책을 위협하는 20세기 마지막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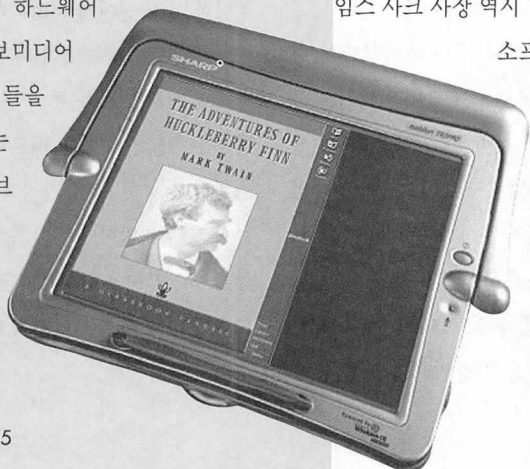
오픈 e북 출판규약 1.0 발표로 전자책 통일안 마련

지난 9월 21일, 21세기를 맞이하는 출판계의 중요한 준비 중 하나가 마무리됐다. 미국에서 전자책에 관한 표준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80년대 초반 비디오시장을 둘러싸고 VHS와 베타 방식간에 벌어졌던 표준 경쟁을 떠올리면 된다. 국내에서 개발될 전자책도 이 표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

1998년 10월,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주최한 제1회 전자책회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개발부 이사인 딕 브라스가 그때까지 업체마다 각기 다른 표준으로 사용되던 전자책의 통일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전자책 통일안 사업은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로켓 e북 생산업체인 누보미디어나 소프트북리더 생산업체인 소프트북 등 하드웨어 생산업체에 따라 전자책의 규격이 달라 업체별로 제각기 전자책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표준화 문제가 절실했다.

모든 하드웨어에 적용될 '오픈 e북'

이 제안에 따라 컨소시엄이 구성됐으며 프로젝트 이름은 '오픈 e북' (OEB)으로 결정됐다. 모든 하드웨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이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는 미국의 양대 전자책 하드웨어 생산업체인 누보미디어와 소프트북, 이들을 열렬히 뒤쫓는 글래스북·리브리우스 등과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마이크로소



전자책은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읽는다. 표준안의 마련으로 하드웨어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소프트북의 소프트북 리더.

프트와 어도비시스템, 출판사인 사이먼앤슈스터, 맥밀란 등으로 전자책 표준안을 둘러싼 업체간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1년에 걸친 협의의 결과가 지난 9월 21일, 미국 메릴랜드주 게이츠버그에서 발표됐다. 업체마다 사활이 걸린 문제라 표준안의 윤곽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시장의 추세를 많이 반영했다는 평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 '오픈 e북 출판규약 1.0'은 인터넷에 주로 쓰이는 언어인 HTML과 XML을 혼용해 만들어졌다. 이 표준안의 핵심은 어떠한 하드웨어라도 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드웨어를 교체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읽을 수 있다.

이 표준안에 대해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누보미디어의 마틴 에버하드 사장은 "HTML에 기반한 로켓 e북이야말로 전자책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HTML이 주된 언어가 된 것을 환영했으며 경쟁업체인 소프트북의 제임스 사크 사장 역시 "오픈 e북이 등장하더라도

소프트북은 완벽하게 호환가능하다"며 호환가능성을 강조했다. 출판계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글래스북, 리브리우스, 에브리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하드웨어 생산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진은 글래스북리더.



역시 한가지 형태의 전자책만 제작하면 되므로 반기는 분위기다. 사이먼앤슈스터의 잭 로마노스 사장은 이 표준안이 출판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출판사로서는 미래의 출판에 한걸음 더 앞서갈 수 있는 기술적 힘을 얻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안에는 암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염려해 출판사의 호응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점 때문에 글래스북은 불법복제방지 표준을 제작 중이다. '전자책 교환'의 준말인 EBX로 알려진 이 표준은 전자책을 빌려주거나 선물할 때 암호가 작성되도록 만들어졌다.

전자책 시장 활성화되는 계기 마련해

한편 이 표준이 나오자, 발 빠르게 전자책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많아졌다. 미국의 서점체인인 반즈앤노블 역시 관심을 표명해 9월 15일부터 미국 31개 서점에서 누보미디어의 전자책을 판매하기로 했다. 누보미디어의 로켓 e북의 가격은 329달러로 페이지퍼백 10권에 해당하는 4천페이지 분량을 담을 수 있다. 현재 전자책으로 읽을 수 있는 타이틀은 소설과 비소설 분야의 1400여권이며 베스트셀러 신간은 거의 다 포함됐다. 각 타이틀의 가격은 99센트에서 25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하드커버본보다 비싸지는 않다.

- 김연수 기자